

공개된 정보

2019년 1월 11일 오후 6시 40분, 강원도 홍천.

산장 앞에서 두 남자가 눈을 맞으며 서 있다. 두 사람은 10분 전 이곳에서 만났다. 먼저 도착한 사람의 이름은 신희성, 자체개발 스마트폰인 'U' 시리즈와 이 기기의 전용 앱인 '기억금고'로 유명한 유희전자의 사장이다. 나중에 도착한 사람의 이름은 김용희. 유명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두 사람은 오늘, 보험회사 UH라이프의 부회장 최시원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문은 잠겨있었고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산장 진입로 끝에서 한 여자가 뛰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아는 얼굴이다. 최혜민, 시원의 여동생이다.

얼마 전만 해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을 그만두고 시원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두 사람 앞까지 뛰어온 혜민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걸었다.

“안 들어가세요? 부회장님 안에 있을 텐데?”

용희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고, 희성이 대답했다.

“없는 모양이던데? 문이고 창문이고 다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어. 전화도 안 받고.”

혜민은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현관 문고리를 잡고 두어 번 당기려고 시도했다. 문은 확실히 잠겨있었다. 혜민은 문 열기를 포기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두꺼운 갈색 점퍼에 털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에는 털이 덥수룩한 남자가 걸어왔다. 소개받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다. 산장 관리인 패션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차림일 것이다. 관리인은 묵묵히 스페어 키를 꺼내 문을 열었고, 일행은 관리인을 따라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깜깜했다.

“어? 불이 나갔나?”

혜민이 중얼거리는 사이 관리인이 누전 차단기를 올렸다. 금세 거실이 환해졌다. 그때 혜민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혜민이 현관에서 스마트폰을 찾아 핸드백을 뒤지는 사이, 용희는 냉장고를 뒤적거렸고 희성은 빈방으로 들어갔다.

“네 부회장님. 여보세요?”

통화 중인 혜민의 목소리에 희성이 방에서 불쑥 머리만 내밀고 물었다.

“형이야? 어디래?”

“모르겠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고 끔겼는데?”

그때 용희가 욕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관리인을 불렀다. 그때까지 말없이 차단기만 만지던 관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주머니에서 스페어 키를 꺼냈다. 욕실이 열리자, 용희가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바로 따라 들어갔다. 시원은 욕조 속에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욕조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시원에게 다가가려는 사람들을 제지한 것은 희성이었다. 희성의 눈은 욕조 바깥의 콘센트로 향해있었다. 콘센트에는 2개의 스마트폰 충전기가 꽂혀 있었고, 그 반대쪽 끝은 물이 찰랑거리는 욕조 안에 들어가 있었다. 관리인은 욕실 전기를 차단하고 오겠다고 다시 차단기로 돌아갔다. 관리인이 돌아오자, 혜민은 서둘러 시원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다. 용희는 패닉 상태에 빠진 혜민을 제지하고 시원의 몸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로서 사망 진단을 내렸다. 사인은 심장마비. 사망 시간은 방금 전. 어느새 밖에는 눈이 쌓여있었다.

관리인이 곧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실적으로 다음날 오전은 되어야 출동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눈이 제법 쌓여 있어 차가 산길을 오르기가 힘든 데다, 시간도 시간인지라 밖은 어두웠다. 일행은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각자 한 명씩 방을 잡아 들어갔다. 가려온 짐을 방에 대충 풀어놓고, 사람들은 거실에 다시 모였다. 이때가 8시. 관리인은 늦은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들 식욕은 없었지만 일단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그때,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이 울리며 정적을 깼다. 모두에게 똑같은 문자가 와 있었다. 발신 번호는 최시원의 번호. 내용은...

“5명이 모여서 1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몇 명일까요?”

모두가 깜짝 놀라 다시 욕실로 돌아갔지만, 시체는 그대로 있었다. 죽은 자가 문자를 보냈단 말인가? 그보다, 살인자라고?



백진(42)

박진(42) 남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비밀: 10년 전, 감독 자리에서 밀려난 남자의 자살이 당신 때문이라는 사실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행적

당신의 이름은 박진. 하지만 이 이름을 얻은 것은 몇 년 되지 않았다. 개명하기 전의 이름은 최진원. UH그룹 최중산 회장이 가장 아꼈던 둘째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편에 때문에 있었지만, 당신은 원래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다. 그룹 내 경영권 다툼에도 관심이 없었고, 특별히 권력을 추구하고 싶지도 않았다. 당신은 그런 것보다는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일인자가 되기보다는, 대단하지 않더라도 꼭 자기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2010년, 당신은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 당신은 권력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 권력과 돈을 사용해 감독 자리를 얻었다. 당신의 첫 영화는 UH그룹 계열사들의 지원까지 받아 가며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그 거창함 만큼이나 처참하게 실패했다. 재도전의 기회조차 꿈꿔볼 수 없을 정도로. 한동안 실의에 빠져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겨우 그 실의를 극복했다고 생각한 어느 날, 당신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감독 자리에서 밀려난 남자가 자살했다는 이야기. 당신은 권력이 가진 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힘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 돈으로 인생을 샀다면, 당연히 돈 때문에 인생을 뺏긴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게야 당신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다. 당신이 있는 이 UH그룹이라는 성과, 그 성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당신의 '자유분방함'은 당신이 어리석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신은 이 성에서 더 버틸 수 없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집을 나서 방향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집을 떠난 직후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들었지만, 결혼식엔 가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일자리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금세 그만두고는 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내는 것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당신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다. 특별한 일 없이 가진 돈만 탕진하며 지내던 중,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다. 그는 홍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산장에서 관리인으로 지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아마도 분명 아버지가 보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주저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이라면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할 일도 없고, 시선을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 후 당신은 꽤 오랫동안 이 산장에서 시간을 보내왔다. 이름도 새로 바꾸고, 세상과 무관계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과거의 자신과 이어지는 끈이라고는, 어려서부터 꾸준히 모아두었던 영화 티켓 정도였다. 내다 버리기엔 아까운 추억이었지만, 들여다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추억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영화, 마지막으로 모았던 티켓이 바로, 10년 전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조감독을 맡았던 '캔디컬'의 시사회 초청권이었던 때문이다. 심지어 당신이 시사회에 초청받은 것은 영화감독으로서였다.

동생인 시원이 헤민과 함께 찾아온 것은 두 달 전이었다. 산장을 매수할 계획이라 둘러보러 왔다고 했다. 새어머니가 데려왔던 딸 헤민과는 초면이었기에 걱정 없었지만, 시원은 당신을 알아볼지도 모른다. 당신은 시원이 당신을 알아볼까 봐 계속 눈을 피했고, 시원은 당신을 의심스럽게 흘끔거렸다. 시원이 돌아가고 나서 당신은 며칠을 끙끙거렸다. 시원이 이 산장을 매수하면, 당신의 이 삶도 끝 나버린다. 유난히 당신을 잘 따랐던 동생이었지만,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있을지는 모른다. 며칠이 지난 후, 산장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욕실에 전기 배선 공사를 하고, 욕조 근처에 콘센트도 하나 달아두라는 내용이었다. 묻지 않아도 시원의 뜻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이걸로 이 산장이 매각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당신은 주인의 지시대로 욕실 공사를 끝내두었다.

그리고 어젯밤, 다시 시원이 찾아왔다. 그는 이틀간, 이 산장에 묵기로 되어있었다. 이날 시원은 당신을 만난 자리에서,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음을 고백했다. 당신은 시원의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론 말을 한 것은 주로 시원 쪽이었다. 시원이 자기 담배를 권했지만, 당신은 Wicos라는 브랜드의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에 사양했다. 밤늦게 관리인 숙소로 돌아온 당신은 전자담배 충전기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아직 배터리가 충분히 많은 상태였고 밤중에 다시 시원을 찾아가기는 꺼려졌기에 포기하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저녁에 올 손님들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 시내로 나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시원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다. 누전 차단기가 이유 없이 자꾸 내려간다는 내용이었다. 산장에 다시 도착할 것은 오후 5시 40분. 차단기 문제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당신은 우선 시내에서 사 온 물건들을 꺼내고 식재료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기다렸다.

오후 7시쯤, 손님들을 데리고 현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불이 나간 것 같다는 헤민의 증언거품을 듣고, 당신은 바로 시원의 문자를 떠올렸다. 당신은 바로 차단기의 스위치를 올렸고, 잠시 동안 차단기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 없었다. 스위치가 다시 떨어지지도 않았다. 시원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 하지만 그 의문은 잠시 후 찾아올 의문에 비하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욕조 안의 시체, 감전사라는 의사의 진단. 시원의 죽음에 차단기가 관련이 있을까? 이 살인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당신인 것일까?

* 추가 규칙: 당신은 6라운드 이후, 언제라도 당신이 UH그룹의 사라진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스티커 D를 개봉하여 <UH그룹 일가 가계도> 카드에 붙입니다. 물론 원한다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